

300-5-136. 신문조서(韓斌 치안유지법 위반)

■ 韓斌 등의 치안유지법 위반사건 수록

- 韓斌(一名 韓미하일, 韓페쓰루)는 공산주의 선전을 하였고, 1933년 8월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공산당 고려부 간부 李永善의 추천으로 모스크바 東洋勞力者공산대학을 1934년 5월에 졸업하고 블라디보스토크 집행위원회 노무부·정치문화부원으로 러시아공산청년회원으로 활동중 派爭으로 만주로 가서 崔昌益·姜東柱·洪元錫 등과 함께 大進青年會에 가입했으며, 梁明과 같이 공산당채건 조직과 공산주의 선전 및 조선혁명운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 기소의견으로 사건은 1930년 5월 23일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 韓斌 외 8명이 送致되었다. 5월 23일 檢事의 韓斌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사가 시작되었다.
- 1930년 4월 20일 '조선공산당원 入鮮 黨재조직 운동의 건' 보고가 있었고, 韓斌에 대한 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사가 5월 6일에 실시되었다. 權夢元和 嚴柱鳳에 대한 신문조사도 6일에 실시되었다. 韓斌의 2회 신문조사는 9일, 3회 신문조사는 15일, 4회 신문조사는 15일에 실시되었고, 朴容善·金秉健·朴善宰 등의 所在수사 보고가 있었다. 韓斌의 5회 신문조사는 5월 19일에 실시되었다. 피의자 소행조사는 5월 22일에 하였고, 1930년 4월 16일에 종로경찰서장이 卽決言渡 구류 29일에 처하였다.
- 경찰의 기소처분 의견으로 이 사건은 5월 23일 검찰에 送致되었으며, 죄명은 치안유지법 위반이고, 송치자는 韓斌·高光洙·梁明·韓海·李京鎬·李鍾林·朴容善·全秉·朴善宇 등이다.
- 5월 23일에 檢事의 韓斌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사가 실시되었으며, 구류장이 발부되었다. 2회 신문조사는 29일에 실시되었다. 5월 28일 검사의 예심청구가 있었다. 구류갱신이 계속되었고, 11월 14일 京城地方法院 豫審係 判事의 1회 被告人 신문조사가 韓斌에 대하여 진행됐다. 11월 26일 李英에 대한 증인 신문조사가 있었고, 12월 1일 趙起勝에 대한 증인 신문조사가 있었으며, 12월 10일 鄭志鉉의 증인신문조사가 있었고, 崔昌益(崔昌錫)에 대한 신문조사가 있었다. 韓斌의 2회 피고인 신문조사는 10일에 실시되었다.
- 韓斌의 治安유지법 위반사건은 12월 12일 예심계 판사의 의견서 요구에 검사의 공판의 견으로 12월 13일 公判에 回付되었다. 訴訟記錄과 증거물이 送付되었고, 李仁·崔秉錫 등이 변호인 선정계를 제출했다.
- 1931년 2월 9일 1회 公判이 進行되었고, 2회 公判은 2월 16일에 실시되었다.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5년, 단 미결구류일수 150일 통산한다고 판결, 선고하였으나, 2월 16일 상소권포기 신청으로 刑이 확정되었다.